

소믈리에가 먼저 찾는 ‘마크 크레덴바이스’... 한식과 찰떡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319

일반 소비자들의 인지도는 높지 않은데 소믈리에들이 먼저 찾아 업장에 쟁여 놓는 와인들이 있다. 알자스 와인이 그렇다. 좋은 산도에서 오는 긴장감과 미네랄이 한식은 물론 일식 등 아시아권 음식과 밀당하듯 기가 막히게 잘 어울려서다.

프랑스 알자스 와이너리 도멘 마크 크레덴바이스(Domaine Marc Kreydenweiss)의 와인메이커 앙투안 크레덴바이스(Antoine Kreydenweiss·사진)는 최근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알자스를 대표하는 포도 품종 리슬링도 어디서 재배됐는지에 따라 캐릭터가 각기 다르다”며 “마크 크레덴바이스 와인은 알자스의 다양한 테루아가 품종을 통해 잘 표현되도록 한다”고 말했다.

앙투안은 마크 크레덴바이스의 13대 손이다. 그가 한국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겹살부터 김치찌개에 라면까지 한국 음식을 제대로 맛보고는 놀랐다. 마크 크레덴바이스 와인과 너무나 잘 어울렸다.



프랑스 알자스 와이너리 도멘 마크 크레덴바이스의 와인메이커 앙투안 크레덴바이스가 최근 한국을 방문해 알자스와 크레덴바이스 와인 대해 설명하고 있다.

마크 크레덴바이스는 한국에서 알자스 와인의 존재감이 거의 없던 2016년 미술랑 레스토랑에서 페어링 와인으로서 첫 선을 보였다. 음식과의 궁합이 좋다 보니 캐주얼 다이닝까지 와인을 공급해 달란 소믈리에들의 요청이 밀려들었다.

사실 수입사인 와이너(WINER)는 역시 이승훈 소믈리에가 설립한 곳이다. 한국소믈리에대회 2연패 우승자답게 알자스 와인의 잠재력을 일찌감치 알아챘다.



도멘 마크 크레덴바이스의 와인. 레이블은 매년 다른 예술가들이 디자인한다. /안상미 기자

도멘은 18세기부터 포도를 재배해 온 가문이다. 와이너리로서 정체성을 구축한 것은 아버지가 와인 양조에 뛰어든 1971년이다. 알자스에서는 최초로 바이오다이내믹 농법을 도입했고, 지금도 기계가 아닌 말이 포도밭을 일군다.

앙투안이 도멘을 맡아 와인을 양조한 것은 2008년부터다. 앙투안은 아버지가 다져놓은 기반을 바탕으로 빼대를 세우고 살을 붙였다.

앙투안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 중 하나는 포도를 수확하는 시기다. 마크 크레덴바이스 와인만의 짙짙함이 여기서 나온다.

그는 “마크 크레덴바이스 와인은 굉장히 에너지가 좋다고 할 만한 긴장도가 있다”며 “와인에 필요한 요소가 충분하다 싶으면 바로 수확에 들어가 같은 마을에서도 수확이 하루라도 더 빠르다”고 전했다.

발효과정에서 차이점은 두 가지다. 먼저 외부 효모가 아닌 자연 효모로 발효시키고, 리(Lee) 숙성을 길게 가져간다. 리는 발효가 끝나면 생기는 효모 양금 혹은 효모 찌꺼기를 말한다. 독특한 풍미와 질감으로 와인에 복합미를 더해주는 역할을 한다. 지금이야 리 숙성을 늘리는 게 트렌드지만 2000년대만 해도 시설

도 그렇고 리 숙성을 고집하기가 쉽지 않았다.

마크 크레덴바이스는 가장 기본급인 와인도 2년은 리 상태로 숙성한다. 그랑크뤼 와인의 경우 2022년 빈티지가 아직도 병입을 하지 않은 리 숙성 상태다.

마크 크레덴바이스가 내추럴 와인이 라고 많이 알려져 있지만 방향성이 다소 다르다. 필요에 따라 아황산염도 쓴다. ‘내추럴’을 위해 와인의 맛이나 품질을 희생할 생각이 없다.

와인병의 레이블은 매년 다른 예술가들이 디자인한다. 레이블만 보면 어떤 빈티지인지 알 수가 있다.

마크 크레덴 와인은 품종이 테루아를 덮지 않는다. 테루아가 품종을 지배한다. 실제 같은 리슬링도 표현력이 다르다.

‘비벨스베르그 그랑크뤼 리슬링 라담 2021’과 ‘카스텔베르그 그랑크뤼 리슬링 2019’는 둘 다 리슬링 100%로 양조했다. 비벨스베르그가 가파른 경사면에 위치한 포도밭에서 생산해 잘 익은 과실미와 볼륨감이 느껴진다면 카스텔베르그는 검은 편암 토양에서 만들어 향신료 풍미와 구조감이 인상적이다. 숙성 잠재력은 30년 안팎에 달한다.



/smahn1@metroseoul.co.kr



문화 단신

주말은 책과 함께

메가박스, ‘돌비 시네마’로 글로벌 화제작 7편 선배

‘국보·크라임101’ 등 장르·팬덤 뚜렷한 작품

메가박스가 4월 한 달간 글로벌 화제작 7편을 프리미엄 상영관 ‘돌비 시네마’로 선배이며 극장가 수요 회복에 나선다. 콘텐츠 경쟁력과 상영 기술을 결합해 관객 체류 시간과 객단가를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라인업은 ‘국보’, ‘크라임101’, ‘극장관 하이큐!! 쓰레기장의 결전’, ‘퀸 락 몬트리올’, ‘리 크로닌의 미이라’, ‘슈퍼 마리오 갤럭시’,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 등 장르와 팬덤이 뚜렷한 작품들로 구성됐다. 해당 작품들은 돌비의 HDR 영상 기술과 몰입형 음향 기술이 적용된 돌비 시네마 및 ‘돌비 비전+에트모스’ 특별관 13곳에서 상영된다.

1일 개봉하는 ‘국보’는 일본에서 천만 관객을 동원하며 실사 영화 흥행 기록을 경신한 작품이다. 화려한 무대 연출과 인물의 감정선을 고해상도 명암 대비로 구현해 프리미엄 포맷의 강점을 극대화한다. 8일에는 돈 윈슬로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크라임101’이 관객을 만난다. 추격전 중심의 서사가 색감과 공간 음향 효과를 통해 긴장감을 배가시킨다.

15일 재개봉하는 ‘극장관 하이큐!! 쓰레기장의 결전’은 스포츠 애니메이션 특유의 속도감과 현장감을 강조한 작품으로, 봄철 관객층 유입을 노린다. 같은 날 상영되는 ‘퀸 락 몬트리올’은 1981년 퀸의 몬트리올 공연 실황을 담은 콘서트 필름으로, 공연 콘텐츠 수요를 겨냥했다.

22일에는 제임스 완이 제작에 참여한 ‘리 크로



닌의 미이라’가 개봉한다. 공포 장르 특유의 어두운 톤과 사운드 연출이 프리미엄 상영관에서 차별화된 체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29일에는 게임 IP 기반 애니메이션 ‘슈퍼 마리오 갤럭시’와 패션 업계를 배경으로 한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가 동시 개봉한다.

메가박스는 돌비 특별관 관람객을 대상으로 엽서와 포스터 등 한정 굿즈를 선착순 증정하는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굿즈 수령 지점은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돌비 시네마는 전 세계 15개국, 290개 이상 지점에서 운영 중인 프리미엄 상영 포맷이다. 메가박스는 2020년 서울 코엑스점에 국내 1호관을 연 이후, 현재 전국 8개 돌비 시네마와 5개 ‘돌비 비전+에트모스’ 특별관을 운영하고 있다. 프리미엄 상영관 확대를 통해 관객 경험을 고도화하고, 잠재된 극장 수요를 회복하겠다는 구상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AI 시대, 인류에게 축복인가 재앙인가

인공지능(AI)은 더 이상 인류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일상이 됐다. 의료, 교육, 산업 등 전방위에서 활약하는 AI는 인류의 삶을 혁신하며 우리를 한 단계 더 진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이 화려한 기술이 역설적으로 ‘인류 진화의 종착지’가 될 수 있다는 경고음도 커지고 있다.

디지털포용 언론인 포럼이 펴낸 ‘AI 휴먼 코드’(서교출판사)는 바로 이 지점에 주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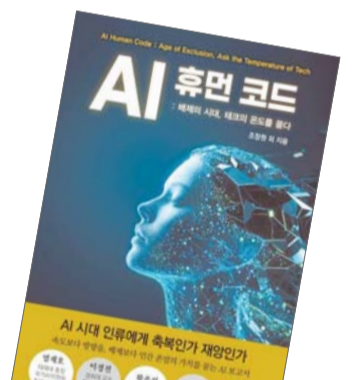
이 포럼은 산업·증권·금융·정치·사회·교육·국제·방송 분야를 두루 취재해온 현직 기자들이 결성한 언론인 연구 모임이다. 청와대 출입, 해외 특파원, 논설위원, 시사평론가, UX라이터, AI 리터러시 전문가 등 다양한 필드의 전문성을 결합해 1년여 간 토론하고 현장을 취재하며 전문가들의 통찰을 모았다.

“진짜 위기는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사유의 마비다. AI가 내놓는 매끈한 답변에 기대어 스스로 생각하기를 멈추는 순간, 인간은 기술에 종속되고 만다.” (12쪽)

책은 기술의 화려한 이면에 감춰진 위험을 냉정하게 해부한다. 저자들은 AI가 가져올 새로운 가능성만큼이나, 그로 인해 야기될 ‘새로운 불평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특히 AI 활용 능력에 따라 발생하는 격차인 ‘AI D 디바이드’ 개념을 통해, 이것이 단순한 기술 격차를 넘어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으로 견줄 수 없을 정도로 심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저자들은 AI가 진정한 인류의 진화를 위해 나아



AI 휴먼 코드

디지털포용 언론인 포럼 지음/서교출판사

가야 할 방향으로 효율보다 ‘존엄’을, 배제보다 ‘포용’을 제시한다. 기술이 윤리와 동행할 때, AI는 비로소 위험의 대상이 아닌 인류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도구로 거듭날 수 있다는 논리다.

책에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회와 산업 등 AI가 실제 사용되고 있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도 담았다.

책이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기술의 속도에 매몰되기보다, 인간다운 가치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진정한 공감과 소통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 기술과 윤리가 함께 갈 때, 비로소 AI는 인간을 위한 기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01쪽)

/김승호 기자 bada@



▲트럼프 순 지지율 -23%P 참사...바이든 최저치와 ‘동률’ /사진 뉴스스
▲에어차이나 등 中 주요 항공사도 유류할증료 인상

▲“독일, 이란발 고유가에 주유소 하루 1회 이상 가격 인상 금지”
▲中 전문가 “트럼프 나토 탈퇴 언급은 압박용 가능성”

▲“우리 땅에서 나가라” UAE, 이란인 비자 취소 초강수...기름값 또 오르나
▲핵통제 없는 세상, 中 쓰촨성에 대규모 핵시설 확장...‘사이트 906’